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女性」「少年」

社說
英伊會談과 匈國의 動向
全體主義對自由主義의 陣營强化

一

神聖羅馬帝國의 再建을 野望하는 파시스트伊太利는 昨年末頃以來突然 튜니스問題를 提起하고 盛히 反佛的제스추를 뵈이엿다. 佛의 此에對한 反對도 또한 極히 强硬한바가 잇서서 形勢는 險惡化하고 잇섯는데 이問題의 圓滿解決과 밋歐洲에 잇서서의 一般的平和確立을 目的으로 英國 首相 췜벌렌氏는 羅馬訪問의 擧를 斷行하여서 去十一日부터 伊首相 뭇솔리니氏와베네치아宮에서 會談을 開始하엿다 그리고 十三日 英伊共同 콤뮤니케를 發表하여서 이英伊兩首相의 歷史的會見은 幕을 닷치게되엿다.

二

이共同聲明은 極히 抽象的의것이요 또 會談中 外間에 傳하는바는 大槪憶測으로 推論된것이여서 正確히 會談의 內容을 말하기는어려우나 그러나 周圍情勢로 보아서 伊相의 主張은 매우 强硬한바가 잇섯던것이 事實이다. 그래서 會談의中斷說까지 傳하여온일도 잇섯다 英相은 佛伊關係의 緩和를 圖謀한것가티 推測되고 또獨逸總統 히틀러氏는 무首相의 自重을 要望하엿다는데 그裏面의理由는 那邊에 잇는지 遽然推測을 不許하나 傳하는바에 依하면 萬一 伊佛間紛爭의 境遇目今一年以前에는 準備未了로 防共盟邦의 義務를 遂行하기 어려운點이 잇다는것이다 左右間今番의 英伊會談은 큰成果가 업시終了되고 따라서 政治哲學的見地에서 高所達觀하면 英佛의 自由主義對 獨伊의 全體主義的 鬪爭의 序幕이라고할수 가잇는것이다.

三

얼마前에 滿洲國을 正式承認하므로써 世界의 센세이슌을 이르킨 匈牙利政府가 去十三日에 또다시 日獨伊防共協定에 參加할 旨를 發表 하엿다. 이것은 日獨伊의防共協定三國이 各其公使를 通하야 協定參加를 匈國政府에 勸誘한 同時에 匈國政府가 應諾한것으로 成立된 歷史的 事實이다. 元來匈國에서는 콤인테른의 活動으로 쓴經驗을 맛보인일이 잇섯다 그리하여서右傾의 傾向을 가지고 잇섯는데다가 最近獨逸의 東方進出策에 呼應하야 獨伊樞軸의 全體主義的動向에 合流한것인데 이것은 事實上 歐洲政局의 勢力均衡上 一大變化를 齎來한것이다.

四

匈牙利國의 動向은 아직 鮮明하지아니하나 그러나 歐洲에잇서서 獨伊를樞軸으로한 全體主義的 一聯에 匈牙利의 參加는 마치 世界大戰前 中歐同盟의聯繫性에 彷彿한바가 잇다 그리하여서 全體主義의 陣營은 一層더 强化될것이다 그러므로그 意義가 極히 重大한것은 길게 說明할 必要를 늣기지안는바이다 이와가티 英佛乃至米國의自由主義的 一聯의 陣營에 對하야 全體主義的 一聯의陣營이 强化되는것은 오는날의 世界政局의 動向과 밋 그歸趨를 어느程度까지 豫測할수잇는 根據가 되는것이다.

今後情勢如何로는 海軍補充計畫再檢討
事變處理엔國際情勢變轉을注視
米內海相西下車中時局談

米內海相

【松本電話同盟】米內海相은實松秘書官을帶同 十四日午前八時三十分上野發 飯田 甲府兩市의 海軍志願兵徵募實況을 視察코저赴하는途中 長野에들어 午後五時十分 松本驛着 富貴湯에 一泊한바 車中大要 左와如히 말하엿다

事變處理方策에 關하여서는이미確乎한 大方針이 決定되어 잇는바로 內閣의更迭에 依하야微動이라도 할것이 아니다 事變解決을爲하야 今後時局國際情勢의 變轉에對한 周到細密한研究가 必要한바 平沼首相도이點에 配慮하고잇다 따라서 適當하게 善處하리라고 期待하고잇다 國民諸君도 首相의 手腕에充分한 信賴를 두고 一致協力하야 모든困難을 突破할覺悟를 하여주기바란다 最近米國海軍의 軍備强化가 露骨化되고잇는듯하나 이와가튼問題는 議會季節에入하면 언제던지 返復되는問題로 國內에對한 政策的要素가 相當히 包含되어잇지나안흔가 고생각된다 平和를사랑하는米國國民이 不必要하게 他國을 刺戟함과가튼 軍備競爭을할理는업다고생각한다 그러나 同國의必要에依한問題로서는勿論이것은 全然無視할수는업다 帝國 海軍의 根本方針은 華盛頓 倫敦兩條約廢棄宣言以來不脅威不侵略의 自主的經濟軍備인點에 變함은업스나 今後의情勢에 依하야서는 이 方針에 基하야 條約廢棄後의 補充計畫에 再檢討를 要할 境遇가 잇슬지도 모른다 今番 議會에도 國防의 完全을 期할수잇는 豫算의成立을 希望하고잇다

汪精衛의聲明은 國民政府에甚大한打擊을 준듯하다 이에伴하야 國民政府가 急速히 共産化하고잇는 現象은 매우興味잇는일이다 그러나 日本으로서는 蔣政權의 動向이라든지 三國이 如何한態度를 取하나하는데 精神을 빼앗기지말고 어데까지라도 聖戰目的의 貫徹에 邁進하고 新東亞建設에 努力하여야 할것이다

首、外、藏相演說草稿 十七日閣議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來十七日의 閣議에서 議會再開劈頭에 할 首相 藏相 外相의 各演說草稿를 決定하고 同時에 提出法案의取扱 其他議會對策에關하야 協議하기로 되여잇는바 提出法案에 關하여서는 相當히 餘裕가 업는關係上 大體에 잇서서前內閣時代에 準備한것을 繼承할 方針이다 그러나 議會主義로써 特히 重要性이 잇는것을 除한外는 提案을 中止할模樣이다

日蘇漁業 權益實行의形式 再檢討論遂擡頭
日蘇漁業을國策會社로

日蘇漁業條約은 本條約은 勿論 暫定協定도 昨年末期限까지에 締定되지못한채 越年、無條約狀態를 現出하게된바 거기서 注目한바는 이權益이 形式的으로는 一營利會社인 日露漁業會社에 맛겨저잇는 事實로 條約更改時마다 外務、陸海軍、農林各省의 絶大한 努力은 名目은我權益維持라고 하지만 結果는한個의 日露漁業會社에 對한 努力에 不過함과가튼 外觀을 呈하고잇는 事實이다 其結果 이問題에對한 國民의關心과 對蘇迫力에 遺憾되는點이 업지안흔感을 一般에게주고잇는바 그原因은 要컨대 日本帝國臣民의父祖의貴한 피를흘리고 獲得한權益이 一營利會社에 委托되여 잇는까닭인데 過去數百年間에 返復된 困難한 日蘇漁業條約改訂問題로 因하야 漸次 官民各方面에서 이 問題에 對하야 根本的檢討를 加하라는 갓센 要望이 擡頭하고잇다 即 이最大權益實行擔當者로서 形式은 現在의 日露漁業會社와가튼 營利會社로는 不可하므로 이것을 根本的으로 改組하야名實共히 近代的인 國策會社로서의 實을擧하도록 하라는것으로 議會再開를앞두고 漁業交涉의難關은 權益에基한 形式問題에關한 活潑한討論이 展開될것으로觀測된다

英、米와同一主旨 對日異議를通達
駐日英大使有田外相에

【東京電話同盟】크레기駐日英國大使는 十四日午後 外相官邸로 有田外相을訪問 舊臘三十日 米國政府의 對日復答과 同一主旨의異議를 通達하여왓다 卽右主旨는 英國政府는 東亞新事態의變化를 大體認定은하지만 事態에 卽한 調整은 關係國間의協議에 依해서야한다는것이다

佛外相顧維鈞과會談 聯盟理事會앞두고

【巴里十三日發同盟】봉네佛外相은 十四日巴里出發 第百三回聯盟理事會에 出席하기爲하야 壽府에赴할것인바 이보다먼저 十三日佛國外務省에 駐佛支那大使顧維鈞의來訪을 求하고 支那의對日提訴問題를 中心으로 會談하엿다 日支紛爭에關한 支那政府의提訴는 今次의理事會에서는 議題의 第十三號로 되어잇는바 顧維鈞支那代表는 昨年九月의第百二回理事會에서한 對日提訴가 依然히 聯盟에繼續될것을 條件으로 聯盟의個別的對日制裁의 報告書에 同意하고잇스며 理事會에서는 議題에上程되고 잇슬뿐으로서는 別段討議는 行하여지지안흐리라고 豫想되고잇다

皇軍占領地域外의 廣東全土無政府狀態

【廣東十四日發同盟】支那側의全面的混亂에刺戟되여 多年 反中央的立場에잇던 西南은 甚히動搖하고잇는바 特히 廣東省은이機會에 中央과 全然 손을끈코積極的으로 獨立하려는 氣運이釀成되고잇다 卽 廣東을中心으로한 各縣은 廣東市及珠江을中心으로한 삼각地帶失陷後의廣東軍은 一千二千으로 分散하야 糧秣彈藥補給에 窮해짐을따라 모두全히 匪賊化하야 一般住民及避難民의 食糧을掠奪하야 겨우 露命을이어가고잇는狀態이며 連縣에서 韶關으로 移轉한 省政府도 亦是無力化하야 有名無實한狀態이다 이리하야 皇軍占領地域을除한 廣東全土는 無政府混亂狀態에빠저잇다

荒木文相과六大學 總長懇談會收穫

【東京電話同盟】戰時體制下의大學의 示標를求할 荒木文相과 六帝大總長과의 懇談會는 十四日午後二時부터 文相官邸에서 開催되어 同六時를 지나 終了한바 荒木文相은 同會席上大學振興에 關한 抱負를 約一時間에亘하야 披瀝하고 大學은 今日과가튼 重大時局에 當하야 일즉이업는 大決意로써 工夫硏究等을 하자안흐면 안될것을 力說하고 敎育과 硏究와의關係 敎授와學生과의關係 特히學生의修養과風格의向上 東西의學術을 融合시켜 日本을主體로하는 世界的權威잇는 日本文化의創造等의點에關하야 述하고 文部省과 다가티 大學과의 一體化를 强調한다음 大學의進路를 硏究할것을 約束하고 人事를終了한바 六帝大總長側으로부터 諸種의注目할 意見을開陳하엿다 就中

一、自然科學硏究機關과 並行하야 人文科學의 綜合的硏究所를 設置하여야된다

一、自然科學系의 大學에 精神科學講座를 設置할것

一、時局에卽한 講座를設置할것 또新文化의創造에 東亞協同體와가튼 新事態의 指導理論을 認定하고 綜合硏究所를 設置할必要

等의 意見이提出된것은 大學自體가 이미新事態에卽하야 振興하고잇는 氣運을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今回의 懇談會는 다시 文部省과 大學側과의 事態에處한 指導精神의 合致를 圖하야 精神的結合을 加하야 鞏固히한것으로 非常한 效果를 두엇다

臨時、維新兩政府
第三次聯合委員會
來廿四日北京에서開催

【北京十五日發同盟】昨年末開催豫定이 延期되엿든 中華民國政府聯合委員會 第三次會議는 來二十四日 北京同會事務所에서開催키로되엿다 第三次會議의主要議題는

一、臨時維新兩政府의共通事項인
(1) 郵政
(2) 棉花輸出統制
(3) 物資의貿易統制
(4) 金融
等諸問題에 關한 聯絡會議設置件

一、近近兩政府의 合同主催로開催될 反共救國全國代表大會의日時及場所決定

一、對日滿外交辦事處를 東京及新京에近近設置할件

等인바 武漢廣東兩政府의 誕生도 追到되고잇는 此際昨秋來急激히 進展된 統一政府樹立問題도如何한 進展의經路를 밟을른지 注目된다

滿洲國政府 國境建設會議

【新京十四日發同盟】政府는 緊迫된 國際關係現狀에 對應코저 十四日午後二時부터 國務院에서 第二回國境建設會議를開催 關東軍關係各課長及協和會代表等 百餘名出席 昨年末開催의 第一回會議에 繼續하야 對蘇國境地帶에서의 國防建設方策에關하야 具體的協議를하엿다

汪、重慶脫出眞相
孔祥熙에對한人身攻擊은汪의策動이라하야
蔣介石과正面衝突

【上海特電(로이타特約)十三日】最近上海에 到着한 信賴할수잇는 人物인 某氏는 十三日世上에 알려지지안흔 最近의 蔣政權의 內幕을暴露하야 汪兆銘의 重慶脫出에 이르기까지의事件의經過에關하야 새로운話題를 發表하엿다 同氏의 談話에依하면 蔣介石과 汪兆銘과의離間은去十日 重慶에서열린 國民參政會會席上에서 行하여진 孔財政部長에對한 苛烈한 身邊攻擊에 端한것이다 當時 孔祥熙는 이身邊攻擊은汪兆銘의 策動이라고 蔣介石에게 提訴하엿스므로 蔣介石의 重慶進入이 出現하엿고 蔣介石은 重慶要人과 協議한 다음 孔祥熙攻擊에 參加한者를 漢奸으로認함 이라고 發表하엿다 蔣介石의 右聲明은 周圍를驚愕케하고 蔣介石의 側近者까지 蔣介石의 行動이 過하지안나하고 念慮하엿다 이聲明의 發하기前에 蔣介石은 中央常務委員會席上에서 一、二黨員의 背後에잇스면서 『不謹愼한行動』을 하고잇다고 非難되엿다 이非難에 呼應하야 汪兆銘은 起立하야 『蔣介石은黨務를 裏面에서 操縱하고잇다彼의 責任을問責하야 處罰하여야한다』고 絶叫하엿다 그結果汪兆銘은 十二月十六日夕刻 蔣介石을私宅으로訪問하고 그게서 蔣介石과公然히衝突하엿다 그後汪兆銘은 成都에赴하야 거기서聲明으로가서 雲南省 首席龍雲에게對하야 意中을說明하엿다 汪兆銘은 이此擧에出한데關하야 全然自己를犧牲할 意思가잇다 萬若自己의 잇는 使命이 失敗하면 彼는 犧牲이될 覺悟이다 汪兆銘은 結局 香港으로 가지는 안헛스나 同志를 同地에 派遣하야 問題의 和平通電을 發케한것이다 (寫眞은 右左蔣介石 汪精衛)

汪의意見尊重을 張永福中央에通電

【香港十四日發同盟】汪精衛의和平通電은 特히華僑方面에 大衝動을주어 汪의和平意見에贊意를表하는者가 續出하는 狀態인바 目下香港에잇는 華僑有力者로僑務委員의 常務委員인 張永福은 去二日 中央黨部 國民政府 軍事委員會及 國民參政會에對하야 『汪의意見을 尊重하라』고다음과가티 通電한것이 最近에判明되어 同地華僑間에 一層큰反響을 惹起하고잇다

汪精衛先生이 孫總理의 所謂大勇은 어떠한것도 무서워하지안는다는精神으로써 十二月二十九日附로 和平主張을 表한것도 同時에 自身을버리고 隣國과의 怨恨을 解決하려는것이다 只今 萬若日本政府로서 近衛前首相의提議를 遵守할것을 保障하고 或은第三國으로부터 日支和平에對한 保障을엇는다면 汪先生의意見을 尊重하야 그의重慶復歸를 促함과同時에 國政을協議할것을 切望한다 아 周의大王은 獯鬻에 文王은 昆夷에親히하야 各各 그善隣의 好를 거두엇다 어떠찌 罪惡히 弱國이 强國에 服할 意味만이 아라 敢히 茲에 卑見을 傳達하야 採擇을 願한다 一月二日 張永福

人權蹂躪問題로 在野法曹團蹶起

【東京電話同盟】保護法規인 行政執行法을 犯罪搜査에轉用함은 分明히憲法違反이며 同時에人權蹂躪도 甚한者이라는 非難聲은 在野法曹間에 日益高揚되고잇는바 法曹出身 平沼騏一郞男이內閣首班이되자 이內閣에 依하야 人權蹂躪의根絶을 期할것이라는 東京、第一、第二의三辯護士會有志는蹶起하야 그實行運動의第一步를 내디디기로되여 十四日午後五時日比谷松本樓에 東京辯護士會로부터 乾辯護士外十名 第一辯護士會로부터 名川辯護士外七名 第二辯護士會로부터 角岡辯護士外五名이參集 決議를한後 卽時 右決議文을 平沼首相 木戶內相 鹽野法相 貴衆兩院議員에게 手交하는 一方全國在野法曹와 連絡하야 全國的運動을 이르키기로 議論된바 從來 感情的으로 疏隔되고잇든 東京三辯護士會가 一致行動을取하게된것은 人權蹂躪傾向의 深刻함을 證左하는것이다

兩婦人會提携促進 各地서協議會開催?

【東京電話同盟】名譽의傷痍軍人에對한 感謝援護의힘찬 國民的運動을 이르키기爲하야 傷兵保護院에서는 昨年來特히 銃後女性의活動을要望한다 國婦、愛婦聯合女子 靑年團等 有力婦人團體가 이主旨에呼應하야 活潑한運動을보이며 特히이運動을 通하야 從來자칫하면 對立反目에빠저오던 愛國、國防兩婦人會의 提携가 促進되여 이미兩會合同의必要까지 絶叫되고잇는때에 이兩者가 共同主催下에 먼저各地에서 兩婦人會幹部 協議懇談會를 開催하고 다시 各地方에서 委員을 囑託하야 繼續的運動을 이르키게되여 十四日傷兵保護院에서 兩團體幹部協議會를 開催하얏다 그結果

一、傷痍軍人의 婚姻問題
二、 業援護
三、銃後道德建設에關한家庭敎育 그他等議題로 新記協議會를 開催키로決定 近日中으로 各地方 支部에對하야 共同指令을 發하기로되엿다

日曜氣配

▲期米 市中在米가 多少消化되어 産地賣物薄으로 堅調目前新舊機待로 氣配强含

▲株式 前途樂觀에 依하야利廻回順調로 一齊買氣가잇서 氣配는 强含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忠言은 耳逆이지다 和平念佛을드다못해 蔣、汪에게 外遊를勸告。
◇
長期抗戰體面을 蔣精神으로 만收拾이될가、共産黨의牌督을 外遊勸告로만 쓰다듬게될가。
◇
無面渡江의 蔣에겐 汪의一擊이 垓下의楚歌。
◇
人民戰線防寒에又一彈、防共協定에 匈國이 또 參加。
◇
『自由』의 輓歌、『全體』의 歡呼、아래서 世界는 兩分。
◇
무首相이 너무 强硬타고 히總統憂慮ㅎ데 自重을 要望。
◇
일이 이만흠된다면 强硬內容이 歷史的으로 궁금。
◇
金融資防寒이 냄새나는 金山을 監視、인제야 이런 꾀가 낫다니。
◇
漢方醫學復興會를 組織、비츤 東方으로부터!

大千集의激戰 敵死體千五百

【北京十四日發同盟】去十一日我小林 小原兩決死部隊는 太千集附近에서 敵에게 大損害를 加하고 敗殘敵은 一部를 新黃河左岸에 남기고 主力은支離滅裂狀으로 東西華로 潰走하엿다 이戰鬪에서의敵의 遺棄死體는 千五百으로 激戰을 證明하고잇다

佛地中海艦隊、北阿巡航演習을開始
對伊强硬態度를表示

【巴里十四日發同盟】佛國地中海艦隊는 來一月十八日을期하야北阿弗利加海軍巡航演習을 開始키로決定하고 十四日그旨를發表하엿는데 時期가바로佛國地中海空軍總司令가미랑將軍과 밋다르란提督이 佛領植民地를 歷訪키로되여잇는지라 植民地問題를 圍繞하야 佛國의對伊强硬態度를 表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桂林方面爆擊

【上海十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 午後四時發表 一昨十二日 南支方面에서 海軍航空隊는 桂林을空襲한外 他一部隊는 廣西省、鬱林方面을偵察攻擊을 開始하야 鬱林兵營에 全彈을集注하야 數棟을 完全히破壞하고 다시同兵營附近에서 軍用트럭數臺를 銃擊하야 이에大損害를 주엇다 그리고 珠江部隊作戰에 協力한 ○機는 珠江南岸의 香山을 攻擊하야 的確한 爆擊으로 同所發電所를 全滅식혓다 어데에서나地上砲火를 認定치못하고全機無事歸還하엿다

世界週天

匈國防共協定參加 中東歐의 政治的動向이 注目되고잇는此際 匈牙利는 外相차키伯을 通하야 ... 十三日에 同國政府의 聲明과同時에 日獨伊防共協定에의 參加를正式으로 聲明하엿다 ... 日獨伊 三國公使에게 協定參加를 受諾하엿다한다

英伊會談中斷 危機再來를 報하야 不安에싸힌 歐洲政局의 安否를 決定할 英伊第一次會談은 十一日午後六時 베네치아宮에서 開催되엿다 英伊兩首相의 十一日의 第一次會談 十二日의 第二次會談의 內容은 西班牙問題及 佛伊關係 植民地要求問題를 中心으로 하야 歐洲의 新秩序再建 歐洲一般平和의 確立에 關한것이라고 傳하는데 第二次會談에 當하야 兩國의意見은 마침내 不一致에 歸하고 英伊會談은 第二次會談으로 事實上 中斷狀態와 同樣으로되고 말엇다

蘇聯漁區競賣通告 日蘇漁業暫定協定締結은 我方의 合理的 要求에도不拘하고 蘇聯의 不誠意에 依하야 드디어昨年內에解決을 보지못하고 말엇는데 去四日 在莫斯科東鄕大使와 西參事官에게對하야 미코얀外國貿易人民委員은『從來日本人이 契約해온 全部沿海漁區를 今月中에는 競賣한다』는 公告를하고 公然히 競賣에부친다는 旨를通告해왓다 이에對하야 我方은 同國의通告는 容認할수업는 事態로 所謂漁業國交가 不安化될 境遇의 責任에對하야 警告하기 바란다는旨로 嚴重히抗議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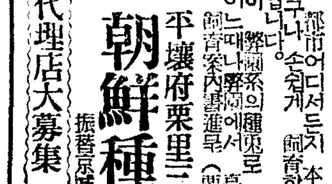
汪精衛再次聲明 舊臘三十日 根本的和平通電을 發하야 各方面에 話題를던진汪精衛는 同通電에 中央과何等意見交換이업시 突然發表되엿다고 非難攻擊되고잇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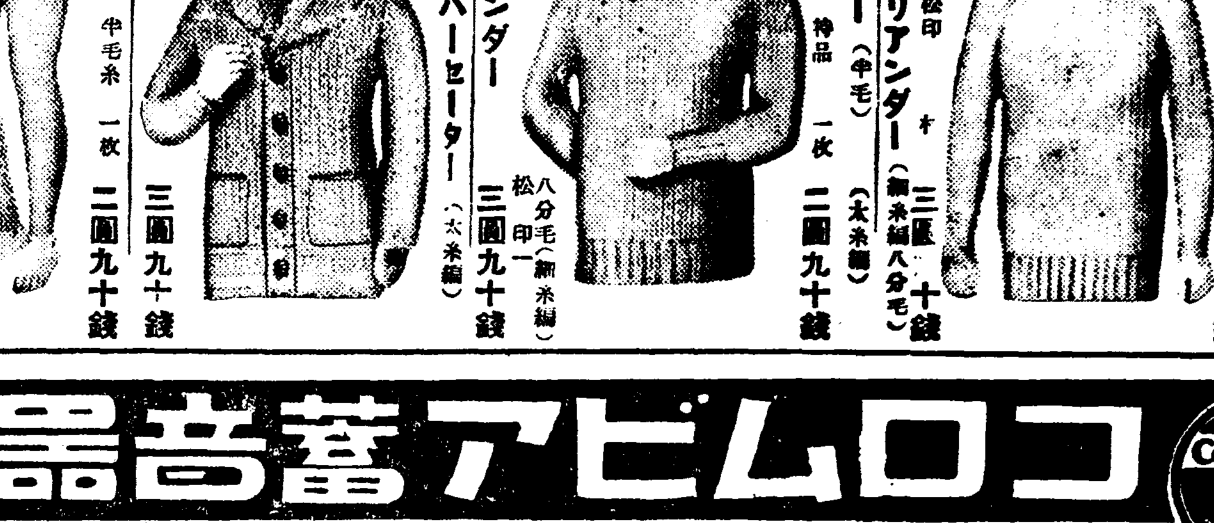
米、國防을强化 四日米國議會에 敎書를보내여 民主主義를 擁護하고 獨裁政治에對한 戰爭準備를 力說한 루米國大統領은 十二日正午 그豫算中에잇던 總額五億五千二百萬弗의 特別國防二個年 計畫을包含한 國防敎書를 議會에送付하고 同國防計畫은 西半球의 國際情勢變化에 對하야 米國의 自由를 擁護하는데 必要不可缺의 最少限度인것을 主張하고잇다

004131

小兒의설사매키는데
消化不良
ベビー散 베비-산
小兒가설사할 경우는 반드시 徐徐히 그치게 하서요 決코설사를 急히 멕키게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릇된 危險한 素人療法입니다
發賣元 株式會社 新井藥房

癩病
世間에서 癩病을 不治病이라고 하는것은 ...
釜山府草梁町回春藥院內 癩病根治絶策硏究所
支店 大邱府大鳳町三〇九兵營橋隣 回春藥院大邱支店


飼兎
五十圓의小資本으로 年利益千圓確實
代理店大募集
平壤府栗里三二 朝鮮種兎園 振替京城一九六一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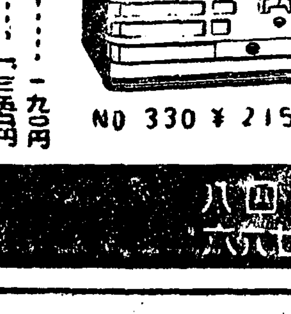

防寒用毛糸製品大安賣
◇防寒用厚地トックリアンダー 中毛太糸編 一枚 二圓九十錢
◇防寒用毛糸トックリアンダー(中毛) 松印 三圓一十錢
◇防寒用厚地アンダー(太糸編) 一枚 二圓九十錢
◇防寒用毛糸前開アンダー
◇防寒用厚地鬼オーバーセーター(太糸編) 八分毛(細糸編) 松印 三圓九十錢
◇防寒用ズボンド 中毛糸 一枚 二圓九十錢 三圓九十錢
◇ネル裏付 スフスコッチ乘馬ズボン 三圓三十錢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直ちに代金引替小包で送ります
名古屋市東區汎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一五一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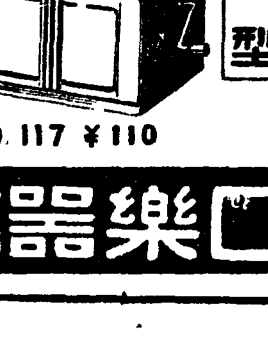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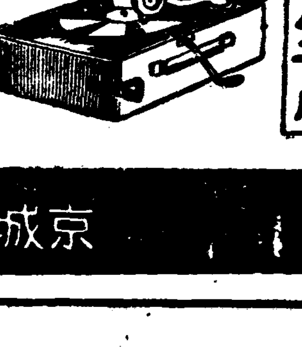
謝近火慰問 信川郡信川邑武井里 趙啓燦

京城府仁寺町一七九番地 (寺洞四街里)
入院完備 內科 小兒科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그것은 金鶴이 만드러내는머리!
香氣이넘치는머리……자랑스러운머리!
金鶴香油
株式會社野村商店

●しもやけに 凍傷에 不可飮 불가음 ¥20・30・50

コロムビア蓄音器
絶對優秀のコロムビアを 蓄音器・電蓄の御求めは

電氣蓄音器 ラヂオ兼用 三四〇號……一九〇円 九五〇號……一三五〇円 九五〇號特別型 一四五〇円 NO 330 ¥215

三一〇號……一六五円 NO.301 ¥235
電氣蓄音器

卓上型 四一〇號 四二〇號 四五二號 四五三號 四六〇號 四七〇號 …… 八五円 九〇円 六〇円 五〇円 NO.117 ¥110
二二二號 二二一號 二二〇號 二三四號 二一三號 二一二號 二五〇號 五六號 二三〇號 …… 一〇五円 七七円 六〇円 三五円 三〇円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No 204 No 203 ¥50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九〇〇〇③四八 振替京城二一七六六

今春以後의道路工事 勞賃撒布五百萬圓

國防道路國道、金山道路拓殖道路等活氣띠는勞働市場

總工事費의約六割을占領

수일전 대장성사정을 통과한 십사년도 총독부예산중에 도로개수에관한것만 팔백이십만여원에 달하야 그육할이상이 로임(勞賃)에 해당함으로 결국십사년도중에 전조선의 도로공사모군들에게만 약오백만원의 로은이 산포된다는 쾌소식을듣더지고잇다 즉이번 대장성사정을통과한 총독부예산중 도로개수에관한것은 국비로써하는 국방도로와 국도(國道)의 개수비가 이백칠십만원이고 금산도로(金山道路)가 이백오십만원 그보조공사가 백만원 도재해복구의도로공사비가 일백십사만팔천원 그 보조공사가 오십륙만팔천원이며 이밧게 복선개척사업의 척식도로(拓殖道路)가 이십오만원으로 그총액이 팔백이십륙만팔천원에 달하여잇는바 이공사비중에 약오백만원이 남짓으로 노동자의 수중에 들어가는것이다 이밧게 하천개수며 항만수축 철도공사와및도시계획공사등 각종공사가시국의 순풍에 돗을달고 쏘다지는데다가 노동자기근이 겹처서 금년의 노동시장은 한층더활기를 띄우게되엿다

全朝鮮漢醫大會

來月下旬京城에서開催하고 漢醫專設立에邁進!

전조선한방의(漢方醫)중진들이 궐기하야 조선독특의 한방의학이 나날이쇠퇴하야감을 근심하고 이것을부흥하고자 지난겨울부터 여러가지운동을 계속하야온중 십사일밤부내 백합원(百合園)에서 부내한방의 유지이십여명이모히여 조선의학의 부흥에대한 여러가지 구체책을협의한결과 한의학전문학교(漢醫學專門學校)와 그연구기관으로 부속병원을설치하기로 내정한후그준비기관으로 동양의약협회(東洋醫藥協會)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엿다

이와가튼 조선독특의 의약계에 가장 중요사명을가지고 출현하는 동양의약협회를 창립하기위하야 다음의 십수씨를 준비위원으로 선거하엿고 이준비위원회에서는 다시 상무위원으로 다음의 육씨를 선거하야써 조선한의학의 부흥진용을 완전히 정비하엿다

이단체의 최고목표인 한의학전문학교와 그부속병원은 되도록 빨리실현하도록 이것을 속히 실현하자면 위선그모체인 동양의약협회를결성하여야 될터이므로 오는이월하순경에 부민관에서 삼천칠백사십사명의 의생과 칠천구백팔십삼명의 한약종상을소집하야 동회의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이것은조선한약을 위하야 실로중대한기대를가지게되는것이다

東洋醫藥協會創立準備委員會=全明河 趙鍾曄 文錫燮 洪淳昇 李根澤 朴喆和 李丁玉 蔡鎭鎬 安禮承 趙寅燮 韓昌律 李景直 金永勳 金東薰 李斗衡 崔瑀鳳 李鍾燮 李明善 李乙雨 ▲常務委員=玄錫燮 李根澤 趙鍾國 李丁玉 趙寅燮 金東薰

漢江通에大火

津下材木店에서發火猛炎中

放火嫌疑로職工引致

십오일 오전한시경에 부내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 진하재목점(津下材木店)공장에서 돌연히 불이일어나서 마침내불길은 동공장을다태워버리고 공장여페쌓아두엇든 재목떼미에 불길이옮아 맹렬한 기세로타고잇는것을 소방조원과 소관용산서원의 노력으로 더연소되지는 안엇스나재목이 원체만히싸혀잇는관계로 지금까지 타고잇다 손해는약육만원이고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나 방화혐의가 농후하야 사건여하로는 동직공수명을인치할지도모르다한다

龍江町火災詳報

精米所는타지아니하엿스나 隣近九戶를霎時全燒

기보=십사일 오후여덟시 이십오분경 부내용강정(龍江町)일백삼십구번지 오용근(吳鎔根)씨 정미소에서 불이낫다함은 그후소관용산서에서 조사한바 오용근씨집이아니라 동번지 김명수(金明洙)씨집에서 불이난것으로 소방조원들이 소화에진력은 하엿스나 수도가 불편한 관계로 용이히 진화되지안코 불길은마침내 이웃에까지부터 아홉채를 전소시키고 동아홉시 사십분에 이르러 겨우진화되엿다 손해는 약삼만원가량되며 원인은 전기 김명수집에 겻방사리하는 김봉이(金奉伊)(二〇)가 비방에불을때노코 박게나간새 굴뚝으로부터 불길이 집웅으로옮아 붓튼것이라한다 전소된 가옥은다음과갓다

▲龍江町一三九 金明洙 ▲同 一二五 崔鎭鶴 ▲同 一三九 朴在順 ▲同 一二五 南宮壽昌 ▲同 一三九 韓景喆 ▲同 一三九 朴容根 ▲同 一二四 鄭昌根 ▲同 一七〇 金鎭燮 ▲同 一三九 金俊植

拳銃을盜難

부내삼판정(三坂町)이백오십륙번지 서선일보(西鮮日報)가자 전중대차랑(田中太郎)씨는 십삼일 오후한시로부터 세시까지잠깐외출한사이에 어떤자가 방에침입하여 씨의소유인『콜트』권총한자로의 다수를 도난당하엿다 용산서에서는 권총의 도난사건이라 즉시 시내각서에 수배를떠우고 범인을 엄탐중이다

체리봉丸坐礁

【大阪電話同盟】십오일오전두시삼십오분 난영인도(蘭領印度)항로 개선해운기선의『체리봉』환(丸)(四、〇四一톤)은 북위(北緯)구도사십삼분 동경(東經)일백이십일도삼십분 고리ㅣ리섬 북쪽 가가얀섬에 좌초되어 구조를 청하고잇다

主人집에侵入 洋服類를窃取

【開城】개성부 지정(池町)사백삼십팔번지 송복동(宋福童)(三三)은 만월정(滿月町)일백육십삼번지의 상호 모중학교김모(金某)란 선생집에 식모로잇는 최정숙(崔良淑)과 정통한관계가 되여가지고 내왕이 빈번하든중 이자는 지난십일오후세시경 김선생이동기방학으로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귀성하고 최정숙만이 집을지킴을 기회로잡어 안방양복장에 걸려잇는 동복두벌과두루막이 한벌을정숙이모르게 절취해다가 그날오후팔시경 부내각처당포로 도라단니며 전부를 삼십원에 제처가지고 술을마셔서 소비하는일방 정숙에게 화장품을사다주어 환심을 사가지고 지내든중 지난십사일에이사실이 개성서원에게 탐지체포되여 방금엄중한 취조를받고 잇는중인데 이자는 전과이범으로 전기범죄사실외에도 작년십일월경 남본정(南本町) 오백삼십사번지 민병헌(閔丙憲)씨 소유자전거한대를 절취해다가경성에가서 팔아먹은사실을 자백하엿다는데 아직도 여죄는만흔모양으로 계속취조중에잇다한다

期約업는두公判

【1】被告업서延期하기八年 【2】共述안해開廷하기六回

【咸南支社發】함흥법원 형사합의공판에는 두가지 미안정의진사건이잇서 일반의흥미를 끌고잇다

하나는 피고가 업는사건이데 사건의 관계피고는 치안유지법위반외 한주교(韓柱敎)(□)로 지난소화육년에 제일차 태평양로동조합(第一次太平洋勞組)사건의 주요관계자로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야 칠년중에 공판에넘어 가잇다가 그해칠월중에 신병으로 보석된것을이용하야 몸을감추어버린채 이때소식이 묘연하다 그러므로 그당시 최고칠년의판결을받고서 벌써 재작년에 출소하얏는데 이피고만이 칠년부터 판사실에 목찰이걸린채해가박귀면 이름을 새로밧구어쓰면서 기약업는 공판을기다리고 잇는터이다

◎ 또하나는 단천(端川)군수하면(水下面)에 본적을두고잇는 한동섭(韓東燮)(□)에게대한 살인사건으로 사건내용은 정신에발작적으로 이생겨서세상을떠난 친자식을 독끼로 찍어죽인것이다 십이년구월중에 함흥법원에서 제일회공판을열엇더니 피고는 최초재판장의 신문에 한마듸도입을열지안흠으로 부득이 공판을중지하얏다 그후로 공판을계속하기를무릇 여섯번에 피고는한번도입을열지안흔대로 지내와서 이번신년에 또공판을열기로되얏는대 피연피고는 따와이를 러서 공술할런지 궁금한일이다

咸興法院의珍事件

장작市場人夫動搖

"賃金外에부스레기줍던것을禁止한까닭"

東署、數名引致코取調

장작부스러기때문에 인부와하주사이에 문제가되여 청량리(淸凉里)장작시장인부 사십여명이파업을하엿다 부내 청량리 장작시장에서는 종래의 인부들이 기차에실어온 장작을 부리우고 싸코 운반해주고 하루에 칠십전내지 팔십전씩의임금을 밧는외에 장작부스러기는 의례히 인부들이 가저다 쓰기로되여 왓섯는데 수일전 목재하주조합(荷主組合)측에서 돌연 부스러기의 양도를 선언하엿스므로 청부자인『마루보시』운송점소속인부 사십여명은 하주측의 인색한 태도에 분개파업을 단행한 것이라한다 원래 이부스러기는 인부들로서는 임금에비등할 때지못할 부수입이니만치 그진전이 주목되던바 그후하주조합과 운송점과인부들간에 수차 절충이잇서 그결과하주조합은 청부업자인 운송점에게 종래임금에서 일원오십전씩주던것을 일원을 더하여 한차바구니에 임금조로 칠원오십전씩으로 올려주되 그대신 운송점은 어 일원을인부임금에 보태여 나누어 주기로 대체로 낙착을보게되여 일시험악한공기를 전하고잇던 이소동은 대체로낙착을 보인듯하더니 십사일 인부중수명이 시장에나온 하주를 구타하는등 귀추가 주목된다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시국이데다가 때가때니만치 사건을중대시하고 즉시 파업의부중 주모자다수를 검거하는한편 배후관계의 유무에대해서 계속취조중이다

길이미끄럽다 受難의牛公

주위는영하(零下)이십도 (경성)를 오르내리고 어름은한강(漢江)에 한자반을 두께 하는 다 이러케 되면 길바닥은 유리쪽처럼 번즈르르해지고 길바닥이 유리바닥처럼되면 인마(人馬)의 통행이 곤난하게된다 사람은보행에 곤난은 업스나 마부에게채직을마지며 수레를끌고 다니는 우마(牛馬)는 그큰몸을 채직과 어름판에 주체를못하야 가엽시 쓰러지고 마는일이 가두에 종종나는 풍경이다 인정업는 마부들은 잡버저 버리려대는 마소에게 채직질만하니 말못하는 짐생이기로 넘우잔인하지안흔가 (사진은비탈길에잡버진소)

廢墟化한淸津舊驛

貨物取扱所로復活

【咸北支社發】하로에도 수천의 여객이 출입하며 수다한 화물을 취급하던 청진부두의 이부근은 실고하야 매우번잡하던 청진구정거장은 작년에 신역이생기게되자 별안간 폐허가 되고말엇는데 여즘 청진부두의 화물취급이 번잡하야짐을 완화하기위하야 구역을 화물취급소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엿다 금후부터 조선내에서 청진항으로 도는청진항에서 조선내각지에가는 화물은 전부청진구역 에서 취급키로되여 다시금 번영의 빗을 어루게 될것이다 따라서 쓸쓸하던 구역전상가도 다시금 번창하야질러이라한다

籠球朝鮮의迫力

比島를完全威壓

아테네오大學軍을또擊破!

今夜라잘大學과最終戰

(寫眞은 比島遠征中의 朝鮮籠球選手諸君)

【마닐라十四日發同盟】當地에來征中인 朝鮮代表軍의第七戰인 對아테네오大學의게임은 十三日밤 「마닐라」리잘 스타디움에서 白熱的人氣속에열렷는바 아테네오는 昨年一月에來征한早大를물리친 強豪로 全比島選手權大會에서 第二位를차지한만치 [illegible]

霸權의歸趨混沌

全國氷上大會前記②

崔、南洞、安、張、尹君等이有力

明大氷上部主將 張日弘 記

第二日의 千五百米 레ㅣ스는 [illegible]

日本28 (1216……520) 25아테네오

光成과京師 今日、決勝戰擧行

中等學校하키ㅣ

朝鮮學生 氷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 아이스하키ㅣ大會는豫定과가티 十四五兩日間 東崇町京城帝大링크에서 擧行된바 第一日인 十四日에는 開城松都中學이 第一回戰에 龍中에게 八對二로 敗退하엿스며 第二次戰이며 準決勝인 平壤光成中學對 京城商業戰은 光成이 第二라운드부터 好調를 보이여 結局四對一로 京商을 一蹴한後 단번에 決勝戰에 드러갓는바 第二日인 十五日午前九時에行한 準決勝에 龍山中學을 六對三으로 이긴 京城師範軍과 이날午後三時에行할 決勝戰에서 對時케되엿다

京 師6 (5……0 / 1……3 / 0……1)3 龍 中 【審判…矢野、久保兩氏】

明日의運動

▲아이스하키=朝鮮學生氷上競技聯盟主催 第二回高專아이스하키ㅣ리ㅣ그第一日…普專對高工(午後二時) 大學對京醫專(午後二時半) 世專對齒專(午後七時)以上全部東崇町大學링크(觀覽無料)

日本海連絡會議

新潟港에서開催

滿鐵北鮮線代表出席

【咸北支社發】신사항(新潟港)에서 철도국주최로 일본해연락기관협의회가 오는십칠, 팔양일에 신사(新潟)역전에서 개최키로되엿는데 만철북선선측에서는 학강(鶴岡)운수과장 증근(曾根)항만주임등이 출석하기로하고 십삼일 출항의월산환(月山丸)으로동지에 향하엿다

圖們市發展의癌

滿鐵用地를移讓

市民要望마침내實現

【間島支社發】도문가(圖們街)의 발전에 중대한관계가잇서 일반 시민으로서 작년이래로 진정중이던 만철용지(滿鐵用地)문제는 그후일만지민의 요망에 의하야 시가의 발전에 조장할 예정으로 만철에서 이양하여주기로결정되엿는데 철도용지와 공공시설(公共施設)이 되여잇는 개소를 제한외에 시가의 일백육십만방메ㅣ돌을 양도할터이데 당국으로서는 목하 이양에대한재정계획을 입안중이데 완료되는대로 성(省)현(縣)당국에서 연락하야 방침을 결정하고 일반시민에게 이양하리라는데 도문발전상 큰도움이 되리라한다

歡樂街의不良輩

一黨十二名檢擧

奉天大和署에서取調

【奉天】요지음봉천시내천일가(千日街)춘일정(春日町)방의카페ㅣ와 유곽등에출입하는 불량자의일당을 소탕하고저 대화서에서속속검거하고잇는바 지난십일에도 이자들을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인데 이들은해군나이프등을소지하고잇스며 현직공서원까지도 가담해잇다 그리고 검거된자들의성명은 다음과갓다

無職岩下博(二五)平安通某商店員森山第三郎(二七)滿洲工所員德留照男(二五)大連某社員福田象彥 (二〇)滿鐵奉天驛員八十川洋一(二〇)無職坪峯行(二〇)無職峯來信雄(二〇)池田某匣滿鐵奉天驛員深田友一(二〇)郵政局員堀內某匣無職阿部某等

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 어린이科學 崔允植 ▲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李明世 ▲七時三十分 獨唱 崔昌殷 ▲八時(平)世界名作이야기 李春園 解說李泰石 ▲八時三五分 音律 ▲九時 京畿歌謠 崔景春 田山紅

第二放送 ▲午後六時(東)드라마 ▲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三〇分(東)浪曲歌謠 ▲八時(大)花月俱樂部中繼 ▲八時五〇分(東)歌舞伎座中繼

天氣豫報

概況 弱한 低氣壓은 山東省 支那內陸에잇고 半島及內地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다 高氣壓은 北滿에서 沿海州에 擴大하고 北海道方面은 氣壓이낫고 南朝鮮은 晴、其他는 흐리고 處處에 小雪이잇다 滿洲는 개이고 表日本은 天氣가조흐나 裏日本에는 눈이나린다

豫報 今夜와 明日은흐리고 눈이오다

昨日最高 二度 同 最低 零下四度七 十五日朝最低 零下十一度二 同正午 零下三度二

曆

日▶月十六日(月曜)十一月二十六日ㅣ▲干支癸丑 ▲日出午前七時四十七分 ▲日南中午後零時四十三分▲日入午後五時三十九分 ▲月出午前四時三分 ▲月入午後二時十四分 ▲滿潮(仁川)午前一時十五分 午後二時十分

手藝材料

실、색、리리얀 끈、수실、毛絲、佛蘭西刺繡絲、비즈 其他手藝材料卸商 商報進呈(三錢切手) 朝鮮京城本町 天光堂手藝社

胃腸病特効藥

戰功丸

빗나는戰功!! 빗나는藥効!!

本劑는強力한殺菌作用을가진 胃腸藥입니다

皇軍慰問袋에 또 銃後保健藥으로서 各方面에多大한 賞讃을받고잇습니다

本舖 大阪 日本製藥化學研究所
代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府本町四丁目 村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新光藥房 京城府鍾路 藥房
鮮滿配給所 京南線光藥房

定價 二十錢 三十錢

春季受驗期 洋藥全集(六百種)見本進呈
洋藥 漢藥 藥種商講義錄 革新版
漢藥全集(五百種)
京城茶屋町二七 朝鮮藥業研究社

淑明女子專門學校

本年四月開校 生徒集募 願書來ル三月二十日迄
本科 家庭科、技藝科(修業年限三年)各一學年四十名宛
專修科(修業年限一年)五十名
入學試驗 三月二七、八、九日
出願手續 學校位置 全鮮公私立高等女學校又ハ本學務所(郵券三錢)ヘ照會
創立事務所 京城府青葉町二丁目孝昌園(建設中) 京城府壽松町八〇番地(電光三七九)
財團法人 淑明學園

感氣直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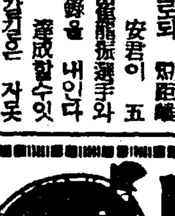
비오敗毒散

감기는만병의원인이되오니만일감기에걸니면 비오패독산을써서속히낫도록하십시요!!

定價金 二十錢 五十錢 一圓

總販賣元 三省聯合新藥研究所
京城府鍾路二丁目 振替京城二三九二七番 電話光化門八一三番

腦病 神經衰弱



腦外神經의病은만히잇스나、어느것이던지苦痛을一時的으로鎭靜할뿐으로서、그病原을根本的으로全治시키는藥은今까지하나도업다. 이것을遺憾으로여겨 我藥界의權威者들이多年間熱心으로專門的研究를繼續한結果드디어劃期的의新藥 腦藥「ノーソ」(腦素)를完成하엿다.

▼頭痛▼不眠症▼逆上眩暈▼病的不安▼倦怠 記憶力과思考力減退▼精力減退▼陰萎遺精

其他一切의腦神經症狀에對한「ノーソ」(腦素)의藥効는實로鬼神과갓다. 辛苦하는분은即時에試驗하시라.

ノーソ「腦素」試藥無代送呈

希望者는 東京市淺草區馬道二丁目和田藥化學研究所에 申込하시라 ノーソ(腦素)試藥에、本邦腦神經科의權威、醫學博士吉田銳一院長의 腦神經病療養書(六十頁冊)을 添附無代謹呈함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血의「混濁을업새고原因부터 고치는今津博士의新療法

不治아니다

喘息、神經痛、中風、高血壓症等의原因을徹底的으로研究한結果、血液이酸하야濁해지나부켜되고神經이侵犯되어서이러난다는것을알고血液淨化에着眼하여 今津研究所로부터發表하고잇습니다 大阪市阪急郵三國町 今津研究所로 依賴하면 此等病을고치는今津博士著의 血液淨化療法、養生法其他注意事項을詳細懇切히가르켜준다

スペロイン

注射以上의高貴藥劑!

主要効能

氣管支性 천식
心臟性 천식
氣管支 카타르
感氣
百日咳
기침 諸症

多年苦心發明한 本劑를 지금곳服用하야 이무서운 病魔를 退治하시라

『스페로인』은 全國藥店에서 取次販賣합니다마는、萬一品切될때는 直接本舖로 申込하십시요

藥價 三日分 六十錢、六日分 壹圓、十五日分 貳圓、廿五日分 參圓、四十五日分 五圓、百日分 十圓
送料前金은無料 代金引換은滿鮮四十五錢을要함

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三丁目 振替大阪七五一四番 電話天王寺四〇一五番

全國藥店에잇소

◎가까잇는가스니 「스페로인」에다리고가서화해주기를바랍니다

천식

喘息

완고한기침

酷寒期北鮮線列車 數時間延着도常例
交通機關의重責을忘却한暴措에憤慨
當局者의無反省에非難聲

【咸北支社發】이즘 북선선열차의 연착이 빈번하야 일반여객의 불편이 여간아니다 그나마십분 이십분쯤 지연되는것은 보통 잇슬수잇는일이나 한시간내지 두시간의 연착을 보게되며 심한때에는 세시간이나 연착하는일도 종종잇다 미리연착을 어알고나간 여객은 별문제거니와 그런지못한여객은 이치운때에 정거장에서 두、세시간을떨며 기달리게되는 고통은 말할수업다한다 지연되는 원인이수해후에 미처 복구되지못한 선로가잇서 그러하지만 수해직후 복구공사를 하면서 운전하던때도 한시간이상의 연착을보지못하엿다고 일반여객은 비난하고잇다 요컨대 중대사명을띠운 교통기관인것만큼 금후 특히 당국자의 주의와 관심을요하야 마지안는바이다

人夫三名이生埋
長湍汶山間複線工事場에서
三十分間만에救出

【長湍】장단―문산간의 철도복선공사구인 경성기점 구배오십키로 지점에서 지난십사일오후두시반경에 이정조(二井組)의 인부가 흙을파내던중 흙이 무너저서 작업인부 삼명이 무참하게도 생매된것을 부근인부가발견하고 대소동이되여 부근인부를 소집하야 구출작업 삼십분만에 생매자전부를 구출하야 즉시 장단의전당병원에서 응급수당을 가하얏는데 부상자두명은중상이고 일명은 생명이 위독이라고한다 부상자는 다음과갓다

長湍郡長湍面都羅山里 智仁台(三)重態
同 朴敬翰(二五)同
同 郡內面邑內里 朴錫福(二八)危篤

假鐵道局員의 犯行續續綻露

【開城】제복제모까지한 가짜철도국원이 요즘개성서에 체포되엿다 부내북본정(北本町)팔백이십사번지에 거주하고잇는 김수근(金壽根)(二六)이라청년은 현재장단(長湍)역에서 역부로근무하는 김복만(金福萬)이란 인물을알게된을 기회로 이자는 김복만으로 행세하기위하야 그의입부를 박어가지고 또는제복제모로써 철도국원의행세를 해가면서 만주와조선각지를 공차로 타고다니며 철도연선 각농촌을배회하면서 직업과 도회를동경하는、농촌청년들에게 철도국원으로 취직시켜주마고 허풍을떨어 그들의환심을 사게한후 취직운동자금으로 우선돈을좀 갈라고속혀서 수백원을 사취해먹엇다는데 지난십사일 개성서 이(李)형사에게 체포되여 방금준엄한 취조를받고잇는데 자백한사기건수만 이십오건이나 된다고한다

開城에知能犯
强窃盜前科者

【開城】본적을 개성 만월정(滿月町)정백구십삼번지에든 김태형(金泰亨)(二?)은 작년십이월이십일 신막(新幕)역전에서 망상업하는 장환규(張煥奎)를 치저가 개성남산정(南山町)자기일가되는 곽경삼(郭慶三)에게 망산용"병풍"일대를 구십원에 싸게사주마는리유로 곽경삼에게 그날즉서 …로 구섭 원을 …한후 이자는 그날밤 개성…경삼의집에 와가지고 우선…로써 매수해노흔후 우편배달부가오기를 문전에서 기다리고잇다가 자기가 구십원을의체 우편물을 영수한후 경삼에게대해서는 이우편물은 자기가신마잇슬때 당신명의로 십원을부친것이니 수영증(受領證)에 날인해달나고 속히는것을 그는무식한때문에 이말을고지듯고 기명날인해주엇든바 그는우편국돈자(?)출시간이 느젓슴을 이유로 남본정(南本町)김상문(金相文)전당포에 손모(孫某)의 소개로가서 현금 구십원파 바구워 사취해 가지고 어대론지 종적을 감추웟다는데 이자는 강절도이범의 경력을 가진 전과자로 … 풍한 지능사기범으로 … 가지고 전기와가든 교묘한 사기사실을 감행한것이라고한다

人夫一名壓死

【開城】본적을 충남공주군계룡면상석리(忠南公州郡鷄龍面上石里)에둔 조봉운(趙鳳雲)(二?)은 경의선(京義線)인부로 품팔러왓다가 개풍군중서면(開豐郡中西面)중서소학교(中西小學校)뒤산미테서 흙파는 작업을하든중 지난십사일오후 네시 흙이 무너저 그는흙더미에 파무처 무참히죽고말엇다고한다

大端川의諸懸案
漁港、邑制、端豊線延長等等
郡民代表들上道陳情

【咸南支社發】소위 대단천실현의예명기에잇는 단천(端川)읍에서는 장차건설될 단천의발전에필요한 여러가지 현실적현안에대하야 십삼일 십삼만군민대표로 심기연(沈基淵)김홍현(金弘賢)량씨가 상도하야 세천(細川)함남지사를 방문하고 간담하얏다 이 현안이라는것은

一、築港工事促進
一、漁港修築
一、邑制實施
一、端豊線의豐山延長

의네가지인데 그들이 진정하는리유와 경위는다음과갓다

첫째 대단천축항문제에대하야 지난서울에 성진(城津)에옹기고 단천은 중지한다는 소문이잇는데 이소문을 듯고서군민들은 대경하야 지난달 이십팔일군민대회를 열고서 지주 팔백명은 지가가 다소저렴하다고하드래도 모두희생적으로 매수에응하겟다는 결의를하고서이촉진을 열망하기로 되엿스니이근본적 정신을 보아서라도 곳실시하야달라

둘째 축항은 이러하나 단천군은 해안선이 육십리 오개어촌에 오천구백명의어민이살고잇는데 아직도 어선을 정박할만한어항이 업스니 이것을 기어히만드러달라

셋재 단천읍은 일만사천명의인구가잇스며 시가정리 하수도개수 상수도 확장등 여러가지시설이 필요하니 읍제를실시하야 이러시설을 실현토록하야달라

넷째 단풍철도는 현재 풍산군풍산(豐山)까지 통하고잇는데 이오지 풍산삼수지방은 특수광업、특수농산물도 극히 풍부한것이 잇슴으로 오지대의 자원개발을 위하야서도 곳 혜산진까지의 연장실현을 하야달라는진정이다

長淵에積雪餘尺
各地交通杜絶

【松川】장연지방에는 눈이차쳐서 교통체송의 두절을 보이고잇다!

지난 십일부터 날세는 달려가며 밤새도록 온눈이 한자가넘는데 그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풍이불어 눈이 불리어차인것이 사、오척은 보통으로 교통이 전부두절되고 체송도역시 두절되여 십삼일부터는 배달부가 도보로 사십여리에까지가서 가지고오는 형편이라하며 당국에서는 크게 고려하던중 십사일부터는 각리에 도로수선구역과여히 매호가 부역을 나서눈을 치게하엿다는데 이제부터도 급히하여야 이삼일은 걸리겟다고하며 일반상업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우려가 극히심하다고한다

交通遞送杜絶區域
長淵―松川間
長淵―夢金浦間
長淵―德洞浦間
長淵―候南間

煉炭木炭은變更업고 石炭價格만改正
十三日平南道告示로써發表

【平南支社發】평안남도 물가위원회에서 지난십이월말에 결정하엿던 가정연료가격을 개정한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십삼일 연료부 전문위원회에 뒤이여십사일 본위원회를 도회의실에서 열고 당신물어더 즉일로 도고시로써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는데 지난번에 공정한가격보다도 오히려 비싸젓고 이에의하면연탄、목탄의공정가격은 그대로두고 석탄만을개정하엿는바 대중소비를고려하여 소매단위인 가마니 매매에는 별차이가업스나 도매 매매에잇서서는 사리의괴란이 매던상확원이던것이 삼십원구십사전으로된등 도리어 비싸지엿스므로 그러치안하도 석탄가격의 고까로 팔성이만런때 수요가에게 일대충동을주고잇다

一、家庭用石炭

銘柄	單位	最終持込最高販賣價格	單位	最終持込最高販賣價格
大文山無煙塊炭	正味七、五〇〇瓩	三六、〇〇圓	叺(正味七、五瓩)	三、四〇圓
龍登無煙塊炭	同	二〇、〇〇	同	一、六〇
沙里院塊炭	同	一七、四〇	同	一、三〇
安州塊炭	同	一六、四〇	同	一、二六
龍岡中塊炭	同	二二、〇〇	同	一、三〇

▲備考 一、右에 揭한 價格은 平壤府에 잇서서의 價格으로함 地方에 잇서서의 運賃諸掛를 計算하고 右에 準하는것으로함
二、右에 揭한 銘柄以外의것이라도 上記에 準하야 取扱하는것으로함

人道隧道遂開通

【石岩】경의선석암역(京義線石岩驛)과 평원선사인역(平元線舍人驛)을 중앙차단(中央遮斷)한안국령(安國嶺)의 인도수도(人道隧道)개착(開鑿)공사를 착공함은기보한바 금월십일에 드디어관통되여 교통상막대한 편리가잇스리라고한다

最近大田의物價趨勢
日用品大部分騰貴
都賣昂騰二六種低落一四種
小賣昂騰一四種低落五種

【忠南支社發】일년중 제일물화의거래가 만흔 지난 십이월중의 대전부내 도、소매물가 팔십여종의 등낙편계를 대전상공회의소의 조사에의하야보면 도매물가가 소매물가보다 등낙변동이 만햇다는데 조사한팔십종중 도매는 등귀이십육 저락십사 무변동사십이고 소매는 등귀십사 저낙오 무변동육십이라는 수자를 내엇는대 등귀한 주요종류의전월비 물가를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都賣物價(騰貴品)

種別	數量	十二月價格	前月
籾三等	百斤	九、五五	八、六七
滿洲粟	〃	九、六〇	九、三五
大麥	一石	一四、五〇	一四、一〇
大豆	〃	二二、五〇	一九、五〇
白胡麻	百斤	三二、一〇	二九、一〇
砂糖	〃	三五、二〇	三四、六〇
乾明太	一駄	八〇、一〇	七五、一〇
粗布	一梱	三〇〇、一〇	二八〇、一〇
韓山苧布	一疋	二三、一〇	二〇、三〇
石油	一罐	七、二〇	六、七〇
牛皮	五斤	一〇〇、一	九〇、一
燐寸	一箱	三、五〇	三、一〇

▲小賣物價(騰貴品)

種別	數量	十二月	十一月
苹果	國光十ケ	、七〇	、六〇
바나나	四百瓦	、二七	、二五
鹽鮭	四百瓦	、三〇	、二五
鹽石首魚	一連	、四〇	、三五
出昆布	四百瓦	、四五	、四〇
乾海苔	一帖	、三五	、二八
간장	二立	、六〇	、五五
粗布	一反	一、五〇	一、四〇
사지	一碼	四、八〇	四、六〇
고무靴	一足	一、三〇	一、二五

府土木豫算削減으로 市區劃整理蹉跌
住宅難解消더욱杳然

【忠南支社發】대전부는 거년오월에 도시계획령(都市計畫令)이 적용된이후 이에따른 토지구획정리(區劃整理)、도로신설、도로포장、하수도정비등 십사년사월에는 실시할예정으로 준비중에 잇다는바 십사년도 토목예산의 대삭감으로 말미아마 이계획에 자연 차질이생길것으로 따라서 도로연변의 건축허가는 전연되지안홀것이라고하야 일반은 벌서부터 이를우려해오는터로 주택난이혹심한 대전부민의 두통거리는 해결될날이 묘연하다고한다

肝油製造業者結束
精油工場도新設
販路擁護에一路邁進

【西湖津】근년 시국관계로 생산비는 파다한 반면에 판매가 시언치못하야 동해안일대의 간유업자의 초조와불안은 자못극도에달하고 잇섯는데 거기에또 겸하야 간유배의 농라으로 판로까지 위협을 당하고 잇는현상이어서 한때 황금시대를 자랑하든 간유제조업도 이제이르러서는 완연히 풍전등화의 신세로 헛되히 의기를 불르지고 불황에울게되엿든것이다

이에 백만어민의 몽우은 말할것도업고 도당국 산업과에서도 사태를 자못중시하고 그대책에 부심하는 중이라한다 이에특히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제조업자측유지 남백우(南百祐)김병용(金炳庸)최봉태(崔鳳泰)등 제씨는 분연히 이러나서 동업자에게 격을날려 긴급한 대책강구회의 개최를 종용하여던바 일반동업자는 이에 열화가티 행응하여 드디어 지난십일하오한시에 함흥공회당에서 동해안간유업자의 총간담회를 보게되엿는데 사활문제를 아메노후니만큼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흥분으로 자못 처참한 광경을 보이고잇섯다 즉석에서 난관을 타파하는데는 우선 인적결속이 선결문제라하여 간유업자의 조합을 결성하는한편 판로의 확장과 옹호를 위하야 먼저 정유공장을 설치하여 품질의 향상을 꾀하기로 만장일치가결하고 이에대한 실행방법은 간부회에 일임한후 동여섯시에 산회하엿다

累犯者가또窃盜
刑務所行을自願

【永登浦】본적을 광주군경안면송정리(廣州郡慶安面松亭里)에두고 일정한 현주소가업는 전과오범 이룡선(李龍善)(三?)은 작년십이월이십일일 오전두시경부 신길정(新吉町)일백이십일번지 이경운(李京云)방에 침입하야 솜반、고무신등 시가오원어치를 절취해가지고 나온것을위시하야 각처에서 이삼차의 동양범행을 게속하다가 수일전영등포경찰서의 검거되어 방금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는데 이자

肺病을悲觀自殺

【平南支社發】폐병을 비관하고 철도자살한청년―십사일오후세시경 평남선조촌―평양간(館村?) 주(?)보통강(普通江)철교 부근에서 평양행화물제오천사백팔십열차에 청년이 뛰여드러 목이절단되어 즉사하엿는데 그는 평양부내서성리(西城里)백삼번지 윤영근(尹永根)(二?)으로 회중에 폐병의처방지가잇섯는데 그것으로보아 폐병을비관하고 자살한것으로 판명되엿다한다

麟蹄에感冒盛行

【麟蹄】금년동기에 인제지방기후는 한동안 따뜻하야 오다가 … 메하야 중세에 보기드문 기온이 지난칠일경에는 영하이십이도에 이르렀스므로 그만한기후변동으로 유행감기가 성행하야 집집마다 신음하는소리뿐이라고한다

明暗

◇ 남조선지방에서 평남각탄광에 금년봄에 이천명광부가 대진군 이달안으로하선 오백여명의선발대가 올려간다고 ◇

인부기근으로 머리앓던 각탄광에서는 물론 반겨마저주겟지만 ◇

「막상 현장에가서보니 모집당시 조건파는 딴판으로 일할수업다」는것이 가끔들리는말 ◇

대우만조흐면 그들도 일하기 실타할리 만무

長篇小說
林巨正 【201】
洪碧初 作
金熊超 畵

평산쌈 (四一)

교군꾼이 교군을 나려노코 별배가 압회장을 거드처뒤 개미치란 사람이 교군압 땅바닥에서 절을하얏다 한온이가 그 사람의 절을 가만이 안저 바드며 그사람에게 말은 하대하지안코 하게로

「굿스을부두 이치우에 나려오나」

하고 물엇다

「청석골 여러분중에 서씨성가진분이 기십지요 그분의 심부름을 마터가지구 오지만 실상은 상제님을 뵈옵심으루 오는길입니다」

「서씨의 심부름? 무슨 심부름인가」

「편지심부름입니다」

「누게가는 편지야」

「손서방이란 사람한테 전하란 편진데 그속에는 아마 상제님께 오는편지두 들엇는갑디다」

「대체 자네가 그분을 어디서 만나밧나」

「삼사일전에 길에서 만나보엿습니다」

「삼사일전이면 스무날인가」

「스무 이튼날인가봅니다」

「그때 편지를 주구 전해달라구 부탁하든가?」

「아니올시다 엇그적게 스무나흔날 다저녁때 편지와 노자를 저엇든 움퍼리루 보내주엇듸다 제 움퍼리는 스무이튼날 만날때 보구가섯지요 편지가지구오는사람에게 전갈해보낸 말슴이 이편지를 청석골 합고개아래동네에 사는 손서방에게 갓다 전하는데 한시각이라두 빨리 전해야만 첫재 그대의 주인이 낭패를면하게될테니 곳 떠나서 밤도아가라구합듸다 달은사람의일두 아니구 상제님이란 말을 겸 밤길이 고생된다구 안올쑤잇습니까 그래서 하룻밤 하룻만에 어제 솔하와서 자구 지금 합고개루 나가는길에 천행으루 이러케 길에서 만나뵙게 됏습니다」

「내가 낭패를 면하게될일이무어야」

「상제님께서 서울 오실때 최가의집으루 오시지말란 듯기가 아닐까요 제 어림에는그런듯십습니다」

「최가란게 누군가」

「댁에잇든 서삼지요」

「최서방이 그저 그집에서살지?」

「수표교천변의 조혼기와집을사가지구 이사햇습니다」

「조혼와가를 사들엇서?」

「누가 집갑를 대엿서」

「최가가 주인의 재물을 제것가티 쓰고 좌포청의 포교와형제가티 지내는것을 개미치가 신이야 넉시야 이야기하는데 한온이는 기가 막혀서 한참동안 입을 벌리고 다물지못하다가

「그런 이야기는 나중 자세이 들을세 잠부 우선 편지나 이리 내게 어디 보세」

하고 개미치의 이야기를 가로마앗다 개미치가 괴나리보짐에서 끄내주는 손가에게 가는 편지를 한온이가 중간에서 뜨덧다 그편지봉 속에 동봉한편지가 두장이 들엇스나 겻봉은것을 보니 한장은 「수남모친게 부치노라」요 또 한장은 「바두령개탁」이라 한온이 자기에게 오는 편지는 업고 손가보라고 적은 사연은 간단한 안부외에 동봉한 편지들을 분전하라는 부탁뿐인데 수남어머니에게 가는 편지를 아무도못보게 갓다주라는 당부가 좀 유난스러웟다 「바두령 개탁」속에는 무슨말이 잇나하고 한온이가 먼저뜨더보앗다 그사연의 대개는 처남을 포청에서 빼내왓스나 병이 위중하야 가위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인정상(人情上)차마 객지에 혼자 두고갈수업스니 장모되는 공인을 삯마라도 태워서 하루밧비 김치선이 객주로 보내주고 또 병이 죽기전처의누님을 한번 만나보아지라고하야 천륜(天倫)의정을 막을수업서 허락하엿스니 안해를 장모와가치 보내주기 바란다는뜻이고 그외에는 장모와 안해가 오는것을 보고 자기는 곳 회정하겟다는 말과 이십사일 기한을 어기게된 사정은 만나서 이야기하겟다는 말과 대장께 최책을 당할일이 걱정이란 말을 느런 노화를 되겟더 한온이가 그편지들을 다 보고 나서 생각하니 자기에게 낭패될 일이라는것도 우선 허무맹랑한 말이거니와 김치선이 기별에 스무사흔날 포청에 잡혀 갓다는사람이 스무나흔날 편지를 부칫다는것이 당초에 고지들을수업는 일이나 편지글씨가 서뎀이의 필적이고 편지끄테 년월일이 십일월 이십사일인즉 김치선이의 기별을 의심할수박게 업는데 김치선이가 병중상섭한사람이 아니바에 삼백니 전도에 거짓기별을 할까닭이업다 아무리 생각해야 일을 대중을 잡을쑤가 업섯다 아모도몰으게 그 안해에게 전하라는 편지를 한온이가 궁금한 맘에 마저 뜨더보고싶으나 남의 내외간의 하는편지를 몰래 뜨더보기가 점직하야 뜨더볼까 말까 편지봉을 손에들고 만지작하다가 마침내 궁금한맘을 못이겨서 곱게 뜨더서 흉치보리고 생각한것이 봉하기를 하도 단단이하야 생자기가 찢기는까닭에 얼얼시 다시 붓칠수업스면 마친가지라고 그대로 봉북 뜨덧다

本報江陵支局電話開通
江陵 二一六番

本報廣告部電話 本局四〇三〇番 販賣部 本局六三八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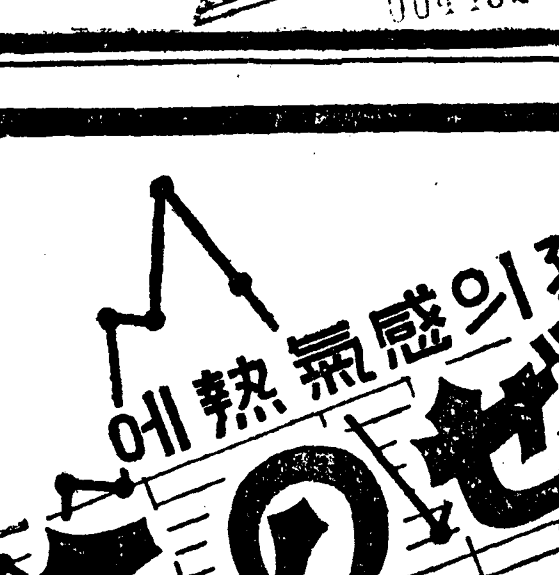
遂に成る世紀の偉業!!
松竹大船總動員! 劃期的超大作
大和魂に哭く
日本人
明治篇 昭和篇 一挙上映
この感激! すべての男も女も優しい母の姿をも再認識する感激篇
日本映畫史に燦と輝くこの偉業! 悲壯! 感激! 祖國愛の極致を衝く!
明治、大正、昭和の現代へと一筋に連らなる眞々たる日本精神建設の大抒情詩!
監督 島津保次郎
入場料 五十錢均一 早朝割引 開演時間まで三十錢

大船明朗篇 家人床
宗本英男作品 出雲八重子 槇英佐子 東山光子 小林十九二 近衛敏明 共演
十六日封切!! 明治座

訃告
父金能秀以宿患本月十三日午後十時別世故茲而告訃
永訣式 一月十七日午前十時
葬地 平南大同郡南兄弟山
昭和十四年一月十三日
平壤府鏡齋里二一七番地
嗣子 金重哲
親戚一同
友人一同

地金灰(납재)賣却함
本社庶務部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外國品ニ劣ラヌ最高級國産品
三菱ミシン

現金正價 足踏式 ¥185.— 手廻式 ¥160.—
◎何レモモートルヲ取付ケレバ電氣ミシントナリマス
20ワットモートル¥45.— (調整器付)
針(家庭用15×1型) 一打 ¥0.70
型錄進呈
京城取扱店 丁子屋・和信・三越・三中井
三菱ミシン陳列場
京城府鐘路二丁目永保ビル 電話光化門(3)1437
004132

兒孩의感氣熱에
かぜのて
가제노고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壹圓
カゼノピリン本舖
楽天堂製薬株式會社

眼科 公眼科醫院
京城府鍾路町十字街 醫學博士 公炳禹 電光二〇七

國民靴大特價八圓五十錢!

1 甲皮…國民牛ボックス 靑牛革
2 底革…英字入
3 品質…耐久力强
4 新型…輕快美麗
5 價格…特別廉價
五大特長
國民靴를斷然코八圓五十錢에 提供합니다 (書信注文)
型錄進呈
平安製革社 平壤府東大院里 私書函八十七號

齒痛に ソレ 今治水

有名한 醫博 學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머리가몹시아플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 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商藥藥局에도무러보십시요

이商標에注意하시압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三番

=學窓小論=

燃料의小考

京城藥專 裵慶奉

非常時局에잇서 燃料에對한槪念을 다시생각하여보는것도 價値잇는 일일듯하야 燃料의輪廓을적어보기로하자。

(一) 固體燃料

1、新 發熱量이작음으로 工業的으로使用되지안흐나 引火點이 얏음으로 日常生活에 만히使用하는것은 周知의 일이다 切折한 材木은 九六%—三○%의水分을 含有하므로 放置乾燥하야 水分이 約二○%될때에 使用하게된다。

2、泥炭 泥炭은 近古代의植物이 炭化된것이므로 炭化가不充分하야 水分이 須爛의 牟이나 된다 大戰後 獨逸에서는이것을 石炭代用으로하엿다 現在에는 動力瓦斯製造하는 一方『암모니아』를 産出하고잇다。

3、褐炭 褐炭에는 두種類가잇는데 蠟分과 樹脂分이 豊富한 褐炭을 瀝靑土、木質이 富한 褐炭을 亞炭이라고 稱한다 瀝靑土에다가 粘合劑를 配合하야 練炭製造或은『암모니아』테ㅣ루等 製造에 使用된다

石炭 石炭의種類는만라 燃燒時의 焰形에 依하야 五種類로 分類한다 即長焰乾燥炭、長焰脂肪炭、中長焰脂肪炭、短焰脂肪炭、無煙炭으로 分類한다 長焰乾炭은所謂貧炭이라한다 揮發分이 만흐나 瓦斯의 發熱量가적어 瓦斯로는 使用되지 못한다 貧炭에는『꼬—구쓰』는 質이 좀으므로『꼬—구쓰』製造에도 使用되지못하고 灰分도만라 長焰脂肪炭은 揮發分이만코發熱量가만라 瓦斯製造에 專用되는 石炭이다。

中長焰脂肪炭、短焰脂肪은 揮發分이 적어瓦斯에는 使用못되고『꼬—구쓰』製造에 專用한다 無煙炭은 工業的用途는업고 불도잘붓지안허 粘着劑를 配合하야 煉炭을 製造하고 或은 發生爐에 느허서 動力瓦斯를製造한다。

『꼬—구쓰』新에서 木炭을엇는것과가티 石炭에揮發分을 瓦斯로 使用하고 其殘渣即『꼬—구쓰』를엇는다『꼬—구쓰』는 發熱量、發熱度가만코 耐壓力이堅强하고 焰火가업고 表面이多孔質인 優秀한 燃料이다『冶金用꼬—구쓰』(Hutter Koks)는 燐分이 석겨서는 金屬에 本質을 상하게하므로 燐分이 업서야한다『꼬—구쓰』製造에 使用되는 石炭은 石炭을 乾溜하야 七○—八○%以上에『꼬—구쓰』를 어들수 잇는 石炭을 選擇한다『꼬—구쓰』製造에는石炭을 高溫乾溜(一○○○—一二○○度)를 한다

石炭의副産物 石炭을 乾溜하야『꼬—구쓰』를엇는一方揮發性物質에서『암모니아水』『타—루』瓦斯를엇는다 다시揮發性物質을分離하야『뻰졸』石炭酸、輕油、重油『꼬—구쓰、파라핀』『아스팔트』等을 엇는다 輕油는『가소린』과 同一한目的에 使用되고 燈油、機械油等으로 使用한다 重油에는石炭酸이 含有하므로石炭酸을 分離取出한後 石油의重油와同一한 目的에使用한다 即石炭을 低溫乾溜한『타—루』는 石油와同一한것이다

練炭 褐炭、無煙炭等品質이조치못한것은 粘着劑(Pich)을 配合하야 練炭으로서使用된다

(二) 液體燃料

原油를蒸溜하야까소린(一五○度以下) 燈油(一五○—三○○度) 重油(三○○以上(殘油))를分離시킨다 石油의 比較的重質的成分即『까솔린』을 除外한石油를 다시熱分解하야『까솔린』을다시만든다 石油의熱分解蒸溜라고여기서엇는『까소린』을 分解『까솔린』이라고稱한다 알코—루 澱粉質醱酵法의依하야『알코—루』를 製造하는것이 從來에方法이나 現今『까—바이트』를 原料로하야 人工的로『알코—루』를 合成하는方法은 우리의獎勵할만한 有望하다고하겟다

$CaO+3C \rightarrow CaC_2$(카—바이드)$+CO$

$CaC_2+2H_2O \rightarrow CH \equiv CH$(아세치렌)

$CH \equiv CH \xrightarrow{H_2O} CH_3CHO \xrightarrow{還元} CH_3CH_2OH$ (알코—루)

(三) 氣體燃料

發生爐瓦斯及水瓦斯 炭素와空氣或은 炭素와水蒸氣를 作用시켜生기는 動力瓦斯인데 瓦斯會社에서使用한다 所謂瓦斯中毒이라는것은 此瓦斯에 中毒을말함이라는것으로 瓦斯會社에 瓦斯는約五○%內外에 酸化炭素를 含有한다 中毒은 酸化炭素의 色素의對한 還元作用에 起原을두는것이다

以上으로燃料의 大略을말하엿스니 其中工業化를 獎勵할만한것은 石炭乾溜와『알코—루』合成이라고보겟다。石炭을 乾溜하야 硫安을製造하면 硫安의 價格이 其硫安을어들만한 石炭의 價格과 大體로 同一하다하니 其以外에副産物을 거저엇게되는것이다。알코—루 合成에對하여서도原料가 上述바와 가티生石灰와炭素이니 現時에잇서 獎勵할만點이라고생각한다。

【隨筆】

貧家莊

中專 申相輔

매서운小寒추위가 넘자오늘이 풀리는듯 시프다 十錢에대여섯가지밖게안되는 장작을 하로에겨우한단을 넛는다 或時 도톤이나잇스면 하로에 두단을 엿코……。

이가튼防寒에 小寒은옷고 텀빈다 밤에자리 미테다 손을너보면 차늘하기란 아스면이눈매갓다 밤새것 엉치락 뒤치락잡을변변히못자고 깨나면 아층이면 눈이 뚱뚱부어서 밤새것을 고난 모양갓다

손을호호불며 진저리낀 窓을 미러재기고房을쓰느라면 팔다리가제리고 가슴이 쓰린기 저녁밥을 늣게 한술먹고잔탓이슬모롤니가 업다

겨우 꼬무락 거리여서 먹다남은 찬밥 한술을 主人어머니게 더운물을 어더다 꺼서 먹고나야 가슴이 화—풀니고 기여들엇든복이 도두나오고 가슴이 들두근거린다。

○

城北町하면 富豪들의 別莊만키로有名한곳이라 城北에서 벌아보면 櫛比한 솔나무사이에 白色洋屋이며 純朝鮮高樓畫閣이수두룩하다。 허나 내가잇는집이라아주 적으며 또는 山밋에잇는탓으로 추위는 더욱할뿐 하로終日 양지를맛보기란 힘든다 大槪 周圍이 同居하난 집들도 大槪가貧家이양 或은 딕마장수或은 생선장수 或은빨내빠는 業等으로서 그날그날을 延命하는니들 인상십다。

그래서나는 내가사는 이한칸 어든房을일홈하야 貧家莊이라불온다 누가 그리 불너주는니도 업다 허나 나는각금식곳잘부룸… 케편지를 쓰는때면 비봉뒤에는「城北町貧家莊」이라고쓴다 貧家莊에主人公이 匪常한 人物이다 언제인가 配達이 城北町貧家莊 申相輔라고 비봉을 쓴걸 가지고 내게 차저 주면서 웃는일까지도 잇다 어만하면 富豪의 別莊부럽지 안케 내 別莊도 이름이 낫다고 웃으며조와햇다。 아무리貧窮한 生活을하기론이 城北町하면 富豪의別莊世界인데 내들別莊이안일야하고지온기 놀롤너봐도 조흔 貧家莊이당。

○

밤이면 飮暑亭 단이는 自動車소리에 자든잠도깨고 술주정꾼에『사케와나미다가』하는 高聲에 꿈世界에서 불내는수가만타 허나 城안에잇슬때와 달나서 距離가면 關係인지 차저오는동무들이적어서 그야말로寂寞을느기면서 홀로 조화하기도하나『외로운家莊』을 連想하는서글로도 업지가다 언제인가 達鎭兄을마저 밤새것 어야기할지음 찻는이가 적어서 외롭다햇더니『孤獨이 조치안하요왜』하는 한마디로 默安삼고산다 그래서그런지 達鎭氏亦是 자조 요지음은안온다。

所謂 卒業을압둔마음은 처재설레이기始作한다。남가티 就職때문에 설레는마음이 아니여서 그에거정은 업스나 卒業은 죽을등살등 겨우 참으로 겨우마치나 卒業後에 갈곳이어디냐。 집이잇느냐 父母가잇느냐 故鄕조차업는사내다 다시 放浪으로 다니다 닷는곳에서 살어야하니 그닷는곳이란 어디냐。卒業해도 누구 기뻐할이도업고 오라는데도업고 孤兒인 貧家莊主人公의 身勢가떡하다 어디가나 貧家莊에 主人노릇을 免치 못하엿스니 슬프기 보담도 싱거운 人生이 아닐수업다。

싱거운人生!

○

까치가 울면 或時 아는동무들께서 편지나오는가하고 기달리는 마음과 두손을새추리에너코 쪼글리고 안저 마코꽁추를 입에문 꼴은 생각우에다 自畵像을 그리노라 (一月十日습)

中學生詩歌特輯

閑村夜話

永生中學 韓侗淑

山中夜

집웅우의 고추가 달비츨바더
빨가케 아롱거리는 산골밤은
『하나、둘、셋………』
北斗七星이 유달리도 多情스러운
옛날이야기속 갓흔 밤이다。

바람은 五里나 떠러진
머—ㄴ 江건너 마을 어—ㄴ집
다듬이 소리를 실고온다
흙에미와 미덥이 외롭게 사는
눈물이 가득찬 집이라는 느낌도
설어다준다。

『하늘천、따지』
어—ㄴ집 막내이 손주가 글읽는 소리
봄으로 간 어미소가 그리워
외양간엔 송아지 우름도 처량하야
어쩐지 불상한 과부가 군소리를
슬프게 불으는 일이 잇는듯 시픈
이한밤 산골개는 詩人이 되는 가보다
달을 처다보며 멍멍 짓기만 한다。

등잔불

좁은 房안에 기름내음새가 가득 차다
게숭냥이가 나려온다는 무서운밤
등잔불은 우스름하야
나는 우스름한 등잔불의 역사를 생각한다
눈섭이 하—얀 어집 영감님이

『달……밤』

中央中學 朴濟烈

나혼자 조고만 勝利를 노래할수잇는 달밤
나혼자 쓰라림을 읊어할수잇는 달밤
오오! 내지친마음의 安息處인 셀롤의달밤이여
그대가 달밤을 나의逃避地로 알는지도지。

달빛은 水晶가튼 바람을 잠재우고
귀뚜라미의 小夜曲은 그으한 情緖를펴다
나는 이름업는 어린詩人을 憧憬하며
生命의 延長인 久遠의달을 직키도다。

사랑의情熱을 복송아만한 心臟에다
고요히 서리어주는薔薇송이를 불러보다
바르르떠는 落葉의 서름만
까마케란 입술을 건드리며 지나가다。

나는 그이가업는 燦爛한 달밤에
希望의 날개는 꼬다기는 가슴속에 품안고
無邊의 廣闊한 벌판을 헤매이며
흩으핀 黃菊花와 나그네의 꿈을 맷다。

離別의埠頭

培材中學 趙演鉉

배떠나고 서람업는海面엔
떠러진테입들만이신겁게遊泳하고
마음은 小夜曲보다 靜寂하다

말업시 보내고
말업시 떠낫건만
——그러다 마음과 마음은、모—든것을理解하고
지—! 黃昏色水平線우에또

배거림자 사라진지 오래건만
발과마음은이埠頭를 떠나지못하는 슬픔을날개젓다

넘나는海面우에
黃昏은 어둠을품고 거러오고
埠頭의酒場에선
離別의푸류—1주가 애닯다

어느듯 장면흐흔 내고달픈投影을海面에누어고
거리의프라타—느의닙알에 우명하는
해너머간埠頭에서——安息의故鄕을잇고墮靈魂은
어제까지幸福떠난 저…水平線을凝視해야하는뇨

—끗—

그옛날이그리워

東萊梵魚寺佛敎中學 金泰雲

이젓든 그옛날이 하도그리워
그옛날 걸어오든 길울거럿소
두리서 옷고지엇든 그길우에는
봉선화 한송이가 방긋이우서주오
봉선화 한송이가 우서주기에
방가운듯 복그러운듯 파서드렷소
그래서는 그길을 돌아서노니
그리운 그옛날이 더욱그리워
터벅 터벅 거닐며 그리워하며
남몰은 숨속을 걸어갑니다
그리운님 남겨둔 회운에 심어주고
그리운 그옛님을 대신하야 봄니다。

芙蓉의설혼꿈

元山樓氏高女 崔鳳女

古雅한 넘은蓮꼿가
그는 수집디 수집은 處女——
하로밤 낫서른 傳說을 탁고
꿈은 지향업이 흘으도다。

푸른 한포기 淸楚한모습
오히려 陋濕한湖心우에 붉으드시 사랑홉다。
孤獨한 季節을 씹는 孤獨한靈魂
어서 잉어를타고 龍宮으로 들어가렴!

한밤 잉어가 붉은날개를 뒤져
絢爛한 사랑을 告白하면
수집어 수집어서 넓게痛수린 얼골이
얇은 水面우의 청백한影像을 옹시하며
제기 흥얼부가 되다

——愛羅에게 주는詩——

幻滅

晉州農業 鄭泰

울고 웃고……
몸은 鈍重하고
넉은 虛無롭다
등불처럼
어제 꺼질지
모르는것!
밤마다——
철거덕소리에
산뎀이 굽부러다。
우름은——停止
웃음은——默讀
停止는 썩고
默讀엔 울고……
正義란——삶이란
꿈에 드른얘기
보다 서글펏고
오는지……가는지
——업는것보다
애처롭다

편지 (콩트)

京畿中學 徐東燮

문을 화다닥열고 손에든책보롤더질라하다가 손을웅켜하고뒤로돌리엿다。 눈에보이는 한책보하나놀 빈틈조차업다。 명색은아름먹이라는곳에 이불이 활개를펴고잡버젓다。

『홍!인제오니。 어서비비고 내미드로 드러오렴』

하는듯 비웃고잇다。 울목방의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잇는 테불에는내세상이라는듯 여기에 한권저기에한권 잡버지고 업퍼지고 제조와하는 포스를 취하고잇다 책상미테는 시험지가 뚤뚤뭉치여느러젓다。

『어서오시우』

하며 오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세월을 나와가티 이웃고울고하든탁자시게가 따르르……하고여섯시를 알린다。학교갓다와도오느나눈인사하는것은 겨우시게밧게업구나! 나는힘업시 쪽마루로올러슨다。 의자에가 털퍽안는다。 모자는 쓰채책보는 끼채。 휘—하고 한숨이 나올으는 사이에 귀에들닌다。 의자를 너머트리며 천정을바라본다。 이래도 전등어라우 하며뻔내다。 줄에두자나될까 더럽은 다마는전등회사에서 달어주지안는 십촉짜리가 연세를마니 잡소시연는지 다마 가꺼머케된것이 깡동달니여잇다。 천정에는 파리똥이아롱다운문의롤이르고잇다。 문이열니며

『진지잡수슈』

하는할멈의 왜!때나 차저와먹지못하고 말노는안하나 귀찬타는드시 헤틀치며 나간다。 밥상우에는 그래도 반찬이만라고 접시가죽느러저잇다 쓰되쓴김치매운깍두기 심심한동치미 짜다못해 쓴동장 된장찌게 아니먹을만한반찬이라고는 이된장찌게가 웃드먹일거랑 반찬투정을 하면 멀하니 허기진판에 맨밥이라도 먹고보자。 반사발을 후다하고나니 된장찌게는미치드러난다。 그래도 입속에인는것은 넹겨야하게길래 툭백이를 들득글거서밥을생키엇다。 물도마시고 싶지안타。 가마니!드러 쪽마루로내논당。

멍하고 벽을바보니 거기에는 귀여운전먹이의 그림이걸니여잇다 그러나지금은 보기실타 중충한벽에 생기업시 걸녀잇스니 머가조아!

딱다!그나마 전등이켜진다。 좋살것갓다 나는부즈런히 책상우에인는 책을정돈하엿다 눈에빠작드는것이잇다 들고보니 明錫이의 편지다『형님』하는처음글자가 나는반가워다 집일은평안하시다는것이다 끄테 흥!하고 써인는것에서 나는고만 껄껄웃엇다 그글자는 明錫이에모든것을 대변하고잇다 또한편나를 비웃는것갓다 그러나그는지나친 생각이엿다 결코명석이가 이렇니는업다 그러고 편지에는 『형님! 공부열심히 하시압기를 비나이다』라써잇다 가슴이 덜컥내려안는다。

나는 미친듯 책을펴노코 드러다보앗다 그러나글자는 보이지안는다 明錫이 불상한생각이든다 편지에는 한자도안썻스나 안씀이 더옹변히 말한다 계모슬하에서 얼마나슬플까 나는눈물이 휘돈다 우리형제를 무엇가티 위하시든 어머님은 이번여름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시고 마섯다 아버지 께서‧올치헛다는듯이 곳 게모를 집안으로 드려섯다。그 게모는 어머님생전에는 첩으로삼고 아버지의일러인 시골서 데리고살든것이다。게모는 소설이나 옛이야기에나오는 그런게모는 아닌듯하다。쓴맛도 단맛도 다아는듯하다。그것만은 불행중다행이다。그러나 아버지는 펴이나원망스러웁다。

나는못올듯고 명성이에게 답장을쓴다。그러나 마음에 먹은대로 쓰이지안는다。나는어린동생을 엇지위로하야 조을지몰으겟다。빽빽찌저버리고 이불밋으로 기여드러가 머리까지푹쓰고 두러눕다。

어머니슬하에잇슬때는 결코지금가트나는 아니엿다。어머님의 두려운사랑밋헤 그날그날을 참행복하게지냇다。어머님의 도라가심과 아버지의알수업는 모양에 나는 이세상이 실허젓다。

나는벌덕이러나 明錫이에게편지를쓴다 겨우한장쓰고낫다 명석아 형은이끌이되엿지만 너만은 남부끄럽지안은사람이 되기를 형은날마다빌고잇다 쓰지는안엇스나 나의마음은 다만이뿐이다。

나는 편지끄테 형은 너의사진을 책상에노코 명년의 목적을위하여 힘쓰겟다 라썻다。

絶對好評 延期二日

廿六日 廿七日 까지 (晝夜三回續映) 府民館

第三回名畫大會

主催——東洋劇場映畫部

・青春の感傷と歡喜を謳へる三大名篇・

・上映藝題・

春の調べ — チェツコスロヴァキア映畫 主演 ヘデイ・キースラー アリベルト・モーグ

乙女の湖 — 佛蘭西スピード社超特作品 シモーヌ・シモン ジャン・ピエール・オーモン

漢江 — 半島映畫社作品 演出 尹逢春 出演 金一海 玄舜英

●始映時間● 第一回=午前十一時廿五分 第二回=午後三時一五分 第三回=七時

夜間 青春座公演 晝間 映畫 十一日밤부터十三日까지

東洋劇場

李瑞求作 안해의가는길・世紀의家庭風景

南宮春作 母の魂・女傑ダーザン

女性 二月號大飛躍

定價從前대로二十錢 送料二錢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山西戰線에서본朝鮮女性 柳寬熙

世界的人氣作家의 팔백會見記

렐픽크

夫婦道德論……李勳求

家庭幸福論……咸大勳

婦人病의知識 許信

靑春美永久保存 李甲洙

나의自敍傳 許英肅

家庭生活改善座談會

梨專先生들의프로필 괴발生

蒼空의 달리사랑

馬車의 實話 李約瑟

金活蘭氏美洲大學生活苦鬪記……一記者

내가女子라면: 女權論者가안된다 金南天 / 大活動家 李箕永 / 男便을사랑하는女子가된다 嚴興燮 / 溫順한女子 金煥泰

내가男子라면: 豪傑男子가된다 朴順天 / 조혼男便 張文卿 / 아이를나켓소 尹聖相 / 男子된슬픔 桂貞植 / 男子된자랑 金文輯 / 女子된슬픔 崔貞熙 / 女子된자랑 李觀玉

우리집겨울花草‥‥崔善福

隨筆: 梅花讚 金晉燮 / 스키ㅣ夢 白鐵 / 雪林 春城 / 溫突夜話 桂鎔默

(畫)(報) 雪林流行品 長期戰에活躍하는皇軍 最近映畫 新春音樂家

姜鏞訖氏家庭을찾어 海雲生

世界的朝鮮作家

各國의겨울밤: 倫敦의겨울밤……金善琪 / 米國의겨울밤……金世炯 / 시베리아의겨울夜話……玄卿駿 / 가나다의겨울밤……劉芙蓉 / 佛蘭西의겨울밤……李晶燮

=雜=東= 主婦메모。女性放送室。女性諜報室。女性짜롱。女性界消息。社會第一錄。文壇第一錄。編輯後記。

二月詩壇: 단장을버리라 外一篇……春園 / 自戒銘……春城 / 傷心 外一篇……張萬榮 / 그림자의獨白……崔璟涉 / 迷忘……金大鳳 / 枯淡……金達鎭 / 능금……林白虎 / 佛蘭西人形은심술쟁이다……李映軾 / 山家……金鍾漢 / 落花……吳信惠

短篇小說 房門 韓笛仙 (金熊超畫)

中篇小說 슬픈解決 方仁根 (鄭玄雄畫)